

외대학보

진리 평화창조

1998년 6월 2일 (화) 제716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칠 편집인 김정희 인쇄인 홍윤주 외대문서 961-4151 FAX 962-7128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 02-4152, 4466 FAX 961-4183 (동인) 0335-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읍 청산리 산 19

6기 한총련 출범선언

극심한 공안탄압에 500여명 연행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지난 29일(금) 서울에서 출범식을 열고 6기 한총련의 출범을 선포했다. 전국에서 400여명이 모여 가운데 열린 이번 출범식은 경제해고 철판과 고용안정 보장, 김정삼 시장 처리, 공정한 IMF 재협상, 학생자치권 확장 분야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6기 한총련 의장 손준혁(영남대 환경생물학과)은 "MFP를 앞세운 미군의 경제침략으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내몰리고 있고, 민중생존권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자주, 민주, 통일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 4천만 민중의 희망으로 거듭나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총련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양심수 전원 석방, 국가보안법 철판, 학생자치권 수호 등의 투

쟁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표명했다. 한편 정부는 한총련 출범식 원봉차단과 함께 전국 각지에 방역 차단과 철거와 같은 강경 대처를 예상해 출범식을 저지, 전국 곳곳의 역과 터미널, 플레이어 등에 불법 검문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대 농대 학생들이 연행되기도 했다. 출범식은 당초 5월 30, 31(토, 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권력의 원천봉쇄로 인해 이날 서울에서 기습으로 진행됐다.

출범식 행사는 29일 마무리되었지만, 출범식 후에는 거리선전과 집회 참가를 중심으로 30, 31일까지 계속 진행됐다. 한총련이 출범식을 하루 빨리 진행했던 것은 지도부가 30일과 31일 공권력이 집결될 것으로 판단 출범식을 빨리 치르고, 30일에 있을 사회시민단체의 집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거

리 선전전략을 펼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과 전국연합 등 30여개 노동·시민단체들은 30일(토) 오전 서울 역광장에서 경제해고 철판과 고용안정 보장, 재벌 해체, IMF 재협상 등을 쟁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원천봉쇄로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을 이 대회 참가자로 못했으나 이날 명동성당까지 진행된 가운데 행진이 적극 겸합, 명동성당에서 노동자, 학생 등 4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리집회를 가졌다.

또한 학생들은 31일(일)에도 농대, 미아, 성수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경찰과 철판과 고용안정 보장, 재벌 해체, IMF 재협상 등을 쟁구하는 선전전을 펼쳤다.

김경신 기자



지난 29일(금) 서울대 도서관 앞 광장에서 6기 한총련 출범식이 기습적으로 열렸다. 출범식은 당초 한양대에서 30·31일(토) 열리기로 예정되었으나, 공인당국의 강력한 검문과 연행, 출범식 예장정과 원천봉쇄 등으로 인해 서울대에서 신도림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막으로 처리되었다. 이날 한총련은 명동·경리집회·김정삼 구속처벌·경리해고체 철판·한총련 이적 대회·경찰 철판 등을 요구하는 명령서를 발표했다. 이후 31일(일)까지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한 정부의 부당성과 요구사항들을 알리려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임승희 기자

박승준 업무상 횡령죄로 구속

대학 당국 관련자 징계위원회 구성

박승준 전 이사장은 지난 29일(금) 자료로 구속됐다. 이는 서울시경 동부지방경찰청에 의해 28일(목) 구속영장이 청구된지 하루만에 이뤄진 것으로 혐의는 △업무상횡령△교사문서 위조 등이다. 현재 박씨는 부정경쟁입학에 개입한 혐의는 완검처리 부하시고 있어 경찰이 대내로 받은 2017년 7월 24일 △교사문서의 사용유형 및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4월 말경으로 예상했던 한총련 사가 한양대로 이어지면서 학내구성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단행된 것이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이를 대내구

악임소 4인, 학교측 5인으로 구성돼 흥정과 결재를 받은 후 이번 학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서울총련은 전대학대회에서 지금 까지의 재단부통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박씨의 의사소통, 교육사업부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서울총련 투표는 이번주 파견이

아임소 스마트제작을 위한 제도적장치 마련△스마트화기와 스마트교실장을 위한 상설위원회 구성 등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학생들과 공동의 입장을 가지는 데까지도 관심과 비판적이다. 특히 학생들은 학생회의 입장과는 반대로 최근 학내에서는 '외래양식의 소리'라는 미명으로 제작한 괴문서가 나돌고 있다.

직원은 상대방에 양면에 걸쳐 배포된 이

문서는 학내사태의 진정한 주범은 안

방만·전·총장의 개인이며 다수학부의

논리가 아니라 날카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면으로 이어집니다

임원
발행일 이수현
7개기 한총련 출범식 개최제로 6월 2일
(화)에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응원 바랍니다.

외대학보

서울배움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어제 개최

제단 투쟁 평가, 총노선, 학생운동 전망, 중앙집행국 인준 등의 안전 처리

서울배움터 98년 상반기 정기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지난 1일(월) 대강당에서 열렸다.

재단부통으로 인해 예정보다 한두달 가량 늦게 열린 이번 전학대회는 학생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진행하기 위해 재단부통과 학생운동에 대한 설문조사 리서치 32를 미리 500부가량 배포·수거한 뒤 진행했다. 학자부통에 대한 평가 및 이후 계획, 총노선 등이 토론 안건으로 진행된 한편 특별안건으로

학생운동의 전망·학생회개혁이, 보고 안건으로 총학생회예결심사와 농협(농민 학생연대활동)이, 인준안건으로 특별기구(시립대학회·중앙집행국인준 등) 등이 처리됐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특히 '학생운동의 진정한 혁신은 노동운동세력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학생운동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기도 했다. 또 언론협의회는 이번 전학대회에서

부총학생회장 강성환(사회·신방 4) 군은 "학자부통의 성과들이 심팀합에 도 불구하고 일본을 사과에서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학대회에서의 평가는 학생으로서 존중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언론협의회는 이미 종문위로 승격됐다. 지난해 상반기 인준받지 못한 생활 도서관도 이번에 다시 인준대상이 됐다.

임승희 기자

관선이사,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외대구조 개혁과 비리 척결 의지 뚜렷

구 재단세력과 어떠한 연계도 없어야

학내구성원과의 대화통한 운영

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해야 합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서울 서양어대 부회장 군입대 파문 논의 과정

“서대 부회장 제도 존속여부 논의 필요”

서대 학생회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서양어대 학생회 부학생회장 정기용 (영어 4, 유헌)군의 입대문제와 관련, 지난 29일(금) ‘비상 서양어대 학생회 표자회의(서학대회)’가 열려 대책을 논의했으나 이후 서양어대 학생회측이 어떻게 구체적인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문제는 많은 논의와 여론 수렴의 여지 를 남기고 있다. 정군이 입대한 것은 지난 29일(금)의 일이다.

서양어대 학생회장 차재훈(포토부감 어 4)군이 서학대회 자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정군은 병역때부터 계속된 학우부정의 과정에서 치자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며 힘들어하던 중 집안에서 입대문장을 내고 한때 연기되었고 했으나 결국 입대하지 못하고 입대했다는 것이다.

서학대회에서는 이 사실을 두고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질것인가’ 즉 ‘제자와 서양어대 학생회장을 포함한 집부정부가 전원 회피한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각과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의사 조정위원회가 제작한 원안인 32대 서양어대 학생회에 대한 불신입부표를 해야 한다’에 대한 친열한 찬반논쟁이 오갔다.

▶1면에서 이어짐

문서에서 밝힌 바에 따른다. ‘의대장심의 소리’라는 모임은 54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구성원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체가 불분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부총학생회장 강윤기(3)군은 “과연 무엇이 학우들과 서대학생회장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라”며 31대 총학생회의 경우에도 투표했다고 했다. 31대 총학생회의 부총학생회장 이원복(서방 4, 유헌)군 역시 입기 중에 입대한 비었으나 학생회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장기적인 압록에서 학생회장을 재제작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스스로는 ‘기장 회장’이라고 소개한 서양어대 학생회장도 “하지만 정부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부를 아내기 위한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리마 시장보드는 다른 대책을 검구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직 1월 70명 중 51명이 참가한 가운데 ‘불신입부표’를 한다는 기관 2표로 부결됐다. 서양어대 회칙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장과의 불신입부를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서학대회에서 재직대비원 2/3(상현·기준 15명)과 참석인원 2/3(상현·기준 34명)의 찬성이 있을 때 투표를 부릴수있다.

이처럼 서대 부학생회장의 입대문제

는 그로 논란이 된 것은 입대 자체가 문제이기도 한다. 대체로 묵은 이전이 차지되어 아니라는 것이다. 97년, 올 98년으로 서대에서만 무려 두번의 전례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독일어 4학년 대표는 “비

박윤정 기자

취재 낙수

교비지급 중단에 맞서자

지난 97년 3월 용인매물터 세네기 세로매물터(세네기)에 대한 대학당국의 일방적 교비 지급 중단으로 총학 생회가 학생회장을 밟아내는 등 심한 마찰을 벌였다.

물론 알리기 않아 학생회가 바로 교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 마찰은 없었으나 대학당국은 교비 지급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학생들에게 불만사항으로 남아있다.

최근 서울매물터 동·남·연합회(동연) 기관자인 ‘우리동연’에 대한 교비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715호 문화면)

문제는 ‘박승준 퇴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만평을 그 기관자에 실었다는 이유로 자리에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회상으로 대학당국의 부정한 행위를 규탄하는 만평이다.

이에 따라 방송에 이어지는 서대와의 계약을 학점교류가 이번 학기에는 불가능하게 됐다. 단 부산외대에는 가능하다.

박윤정 기자

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비를 지급하는 데 쓰이는 예산은 예산 기초 총학생회의 회원인 학생들로부터 받은 학생회비이다. 학생들로부터 같은 학생회비를 학생들이 미리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돈을 학생들이 못쓰는 것이다.

이번 문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학생자치권을 밟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직까지 계승돼고 있다. 학회 개권을 위한 꿈寐없는 노력에 대한 대학당국은 학생회비가 얼마나 걸렸는지 조차 계산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로부터 ‘대학당국이 그 자금을 유용하고 활용할 것이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따라서 학생회비에 대한 대학당국의 부정한 예산공개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지급을 학생들에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명예권 기자



개진 양심

최근 서울매물터 학생회에서는 청빈에 단체로 의사·개진·창문·부시진·세면대 등의 폐순위 기밀을 솔직하고 있다. 이는 밤늦게 술취한 학생들의 행위로, 알미전에는 학교 고시원으로 의자와 쓰레기 등이 밀어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사진은 순원장 문의 유리조각들이 헛기운에 흩어져 있는 새

방지되고 있는 모습.

임승희 기자

서울 도서관, 대안이 무엇인가 2

도자위 공간 도서관내 학보하라

학생들 요구 사항 풀어줄 장치 미흡

▶지난호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드러나는 도서관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도난문제이다. 도서관 앞에서 만난 김준호(사회·행정 3)군은 “부부분의 시기에는 대부분 배운이나 반납문제로 물려고 있고 여기 때문이다.”며 전공서류·법전·법률·기본서적·일기장·교과서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도서관에서만 무려 두번의 전례가 있었던 것이다.

학생들에게 시기하고 부학생회장의 글위에 따른 대책 예를 들어 서학대회에서 재직대비원 2/3(상현·기준 15명)과 참석인원 2/3(상현·기준 34명)의 찬성이 있을 때 투표를 세우는 것은 물론이나 학생회에 대한 예산이 비단에 필요한 때 투표를 부릴수있다.

그것이 학생들에게 의해 실제 출판되고 학자투쟁에서도 지지하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서대학생회장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서대학

생회가 ‘진정 학생들을 책임지는 모범’을 기대한다.

박윤정 기자

“정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나, 단장 도난문제의 대안은 사물함밖에 없다”며 사물함설치를 주장했다. 사물함설치 이후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물함은 배운이나 반납문제로 물려고 있고 여기 때문이다.

클럽행사 이용기간은 현재의 특수성을 고려해 6개월로 1년으로 연장됐으나 각과마다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학생이 이를 영향을 미친 경우는 1년 후 다시 6개월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공중전화 증설은 전화국의 승인이 있으면 설치하는데 물려고 있고 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각한 도난문제가 사물함으로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난사건·주변을 위한 학회’를 제정·인발백제(一罰百制)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도서관에서 학생제시제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하고 학생에 의해 한 도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형사고발보다는 경각이주는 경우가 비단비해하된다 것이다. 그러므로 절도로 적발된 사람들은 신상을 공개하는 제재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자위측은 “제재조사 결과 사물함설치를 위한 공간은 있다”며 “도서관 사장과 직원에게 의해 도난사건이 적발됐던 학생을 그냥 물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있다.

그밖에 품종, 노천극장 접수시 소음 등에 대한 대책으로 도자위에서는 이 중장이나 단장 도난문제를 요구했으나 도서관측은 그것으로도 풍랑이나 노천소음은 차단할 수 없으며 구조상 이중창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조사과정은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클럽행사 이용기간은 현재의 특수성을 고려해 6개월로 1년으로 연장됐으나 각과마다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학생이 이를 영향을 미친 경우는 1년 후 다시 6개월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공중전화 증설은 전화국의 승인이 있으면 설치하는데 물려고 있고 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각한 도난문제가 사물함으로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난사건·주변을 위한 학회’를 제정·인발백제(一罰百制)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도서관에서 학생제시제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하고 학생에 의해 한 도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형사고발보다는 경각이주는 경우가 비단비해하된다 것이다. 그러므로 절도로 적발된 사람들은 신상을 공개하는 제재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자위측은 “제재조사 결과 사물

함설치를 위한 공간은 있다”며 “도서관 사장과 직원에게 의해 도난사건이 적발됐던 학생을 그냥 물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있다.

그밖에 품종, 노천극장 접수시 소음 등에 대한 대책으로 도자위에서는 이 중장이나 단장 도난문제를 요구했으나 도

서관측은 그것으로도 풍랑이나 노천소음은 차단할 수 없으며 구조상 이중창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조사과정은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클럽행사 이용기간은 현재의 특수성을 고려해 6개월로 1년으로 연장됐으나 각과마다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학생이 이를 영향을 미친 경우는 1년 후 다시 6개월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공중전화 증설은 전화국의 승인이 있으면 설치하는데 물려고 있고 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각한 도난문제가 사물함으로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난사건·주변을 위한 학회’를 제정·인발백제(一罰百制)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도서관에서 학생제시제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하고 학생에 의해 한 도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형사고발보다는 경각이주는 경우가 비단비해하된다 것이다. 그러므로 절도로 적발된 사람들은 신상을 공개하는 제재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자위측은 “제재조사 결과 사

물함설치를 위한 공간은 있다”며 “도서관 사장과 직원에게 의해 도난사건이 적발됐던 학생을 그냥 물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있다.

그밖에 품종, 노천극장 접수시 소음 등에 대한 대책으로 도자위에서는 이 중장이나 단장 도난문제를 요구했으나 도

서관측은 그것으로도 풍랑이나 노천소음은 차단할 수 없으며 구조상 이중창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조사과정은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클럽행사 이용기간은 현재의 특수성을 고려해 6개월로 1년으로 연장됐으나 각과마다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학생이 이를 영향을 미친 경우는 1년 후 다시 6개월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공중전화 증설은 전화국의 승인이 있으면 설치하는데 물려고 있고 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각한 도난문제가 사물함으로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난사건·주변을 위한 학회’를 제정·인발백제(一罰百制)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도서관에서 학생제시제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하고 학생에 의해 한 도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형사고발보다는 경각이주는 경우가 비단비해하된다 것이다. 그러므로 절도로 적발된 사람들은 신상을 공개하는 제재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자위측은 “제재조사 결과 사

물함설치를 위한 공간은 있다”며 “도서관 사장과 직원에게 의해 도난사건이 적발됐던 학생을 그냥 물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있다.

그밖에 품종, 노천극장 접수시 소음 등에 대한 대책으로 도자위에서는 이 중장이나 단장 도난문제를 요구했으나 도

서관측은 그것으로도 풍랑이나 노천소음은 차단할 수 없으며 구조상 이중창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조사과정은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클럽행사 이용기간은 현재의 특수성을 고려해 6개월로 1년으로 연장됐으나 각과마다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학생이 이를 영향을 미친 경우는 1년 후 다시 6개월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공중전화 증설은 전화국의 승인이 있으면 설치하는데 물려고 있고 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각한 도난문제가 사물함으로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난사건·주변을 위한 학회’를 제정·인발백제(一罰百制)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도서관에서 학생제시제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하고 학생에 의해 한 도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형사고발보다는 경각이주는 경우가 비단비해하된다 것이다. 그러므로 절도로 적발된 사람들은 신상을 공개하는 제재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자위측은 “제재조사 결과 사

물함설치를 위한 공간은 있다”며 “도서관 사장과 직원에게 의해 도난사건이 적발됐던 학생을 그냥 물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있다.

그밖에 품종, 노천극장 접수시 소음 등에 대한 대책으로 도자위에서는 이 중장이나 단장 도난문제를 요구했으나 도

서관측은 그것으로도 풍랑이나 노천소음은 차단할 수 없으며 구조상 이중창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조사과정은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클럽행사 이용기간은 현재의 특수성을 고려해 6개월로 1년으로 연장됐으나 각과마다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학생이 이를 영향을 미친 경우는 1년 후 다시 6개월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공중전화 증설은 전화국의 승인이 있으면 설치하는데 물려고 있고 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각한 도난문제가 사물함으로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난사건·주변을 위한 학회’를 제정·인발백제(一罰百制)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도서관에서 학생제시제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하고 학생에 의해 한 도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형사고발보다는 경각이주는 경우가 비단비해하된다 것이다. 그러므로 절도로 적발된 사람들은 신상을 공개하는 제재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자위측은 “제재조사 결과 사

물함설치를 위한 공간은 있다”며 “도서관 사장과 직원에게 의해 도난사건이 적발됐던 학생을 그냥 물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있다.

그밖에 품종, 노천극장 접수시 소음 등에 대한 대책으로 도자위에서는 이 중장이나 단장 도난문제를 요구했으나 도

서관측은 그것으로도 풍랑이나 노천소음은 차단할 수 없으며 구조상 이중창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조사과정은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클럽행사 이용기간은 현재의 특수성을 고려해 6개월로 1년으로 연장됐으나 각과마다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학생이 이를 영향을 미친 경우는 1년 후 다시 6개월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공중전화 증설은 전화국의 승인이 있으면 설치하는데 물려고 있고 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각한 도난문제가 사물함으로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난사건·주변을 위한 학회’를 제정·인발백제(一罰百制)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도서관에서 학생제시제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하고 학생에 의해 한 도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형사고발보다는 경각이주는 경우가 비단비해하된다 것이다. 그러므로 절도로 적발된 사람들은 신상을 공개하는 제재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자위측은 “제재조사 결과 사

물함설치를 위한 공간은 있다”며 “도서관 사장과 직원에게 의해 도난사건이 적발됐던 학생을 그냥 물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있다.

그밖에 품종, 노천극장 접수시 소음 등에 대한 대책으로 도자위에서는 이 중장이나 단장 도난문제를 요구했으나 도

서관측은 그것으로도 풍랑이나 노천소음은 차단할 수 없으며 구조상 이중창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조사과정은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클럽행사 이용기간은 현재의 특수성을 고려해 6개월로 1년으로 연장됐으나 각과마다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학생이 이를 영향을 미친 경우는 1년 후 다시 6개월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공중전화 증설은 전화국의 승인이 있으면 설치하는데 물려고 있고 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각한 도난문제가 사물함으로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난사건·주변을 위한 학회’를 제정·인발백제(一罰百制)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도서관에서 학생제시제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하고 학생에 의해 한 도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형사고발보다는 경각이주는 경우가 비단비해하된다 것이다. 그러므로 절도로 적발된 사람들은 신상을 공개하는 제재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자위측은 “제재조사 결과 사

물함설치를 위한 공간은 있다”며 “도서관 사장과 직원에게 의해 도난사건이 적발됐던 학생을 그냥 물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있다.

그밖에 품종, 노천극장 접수시 소음 등에 대한 대책으로 도자위에서는 이 중장이나 단장 도난문제를 요구했으나 도

서관측은 그것으로도 풍랑이나 노천소음은 차단할 수 없으며 구조상 이중창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조사과정은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클럽행사 이용기간은 현재의 특수성을 고려해 6개월로 1년으로 연장됐으나 각과마다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학생이 이를 영향을 미친 경우는 1년 후 다시 6개월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공중전화 증설은 전화국의 승인이 있으면 설치하는데 물려고 있고 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각한 도난문제가 사물함으로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난사건·주변을 위한 학회’를 제정·인발백제(一罰百制)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도서관에서 학생제시제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하고 학생에 의해 한 도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형사고발보다는 경각이주는 경우가 비단비해하된다 것이다. 그러므로 절도로 적발된 사람들은 신상을 공개하는 제재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자위측은 “제재조사 결과 사

물함설치를 위한 공간은 있다”며 “도서관 사장과 직원에게 의해 도난사건이 적발됐던 학생을 그냥 물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있다.

그밖에 품종, 노천극장 접수시 소음 등에 대한 대책으로 도자위에서는 이 중장이나 단장 도난문제를 요구했으나 도

서관측은 그것으로도 풍랑이나 노천소음은 차단할 수 없으며 구조상 이중창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조사과정은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클럽행사 이용기간은 현재의 특수성을 고려해 6개월로 1년으로 연장됐으나 각과마다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학생이 이를 영향을 미친 경우는 1년 후 다시 6개월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공중전화 증설은 전화국의 승인이 있으면 설치하는데 물려고 있고 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각한 도난문제가 사물함으로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난사건·주변을 위한 학회’를 제정·인발백제(一罰百制)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도서관에서 학생제시제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하고 학생에 의해 한 도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형사고발보다는 경각이주는 경우가 비단비해하된다 것이다. 그러므로 절도로 적발된 사람들은 신상을 공개하는 제재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자위측은 “제재조사 결과 사

물함설치를 위한 공간은 있다”며 “도서관 사장과 직원에게 의해 도난사건이 적발됐던 학생을 그냥 물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있다.

그밖에 품종, 노천극장 접수시 소음 등에 대한 대책으로 도자위에서는 이 중장이나 단장 도난문제를 요구했으나 도

서관측은 그것으로도 풍랑이나 노천소음은 차단할 수 없으며 구조상 이중창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조사과정은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클럽행사 이용기간은 현재의 특수성을 고려해 6개월로 1년으로 연장됐으나 각과마다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학생이 이를 영향을 미친 경우는 1년 후 다시 6개월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공중전화 증설은 전화국의 승인이 있으면 설치하는데 물려고 있고 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각한 도난문제가 사물함으로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난사건·주변을 위한 학회’를 제정·인발백제(一罰百制)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도서관에서 학생제시제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하고 학생에 의해 한 도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형사고발보다는 경각이주는 경우가 비단비해하된다 것이다. 그러므로 절도로 적발된 사람들은 신상을 공개하는 제재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자위측은 “제재조사 결과 사

물함설치를 위한 공간은 있다”며 “도서관 사장과 직원에게 의해 도난사건이 적발됐던 학생을 그냥 물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있다.

그밖에 품종, 노천극장 접수시 소음 등에 대한 대책으로 도자위에서는 이 중장이나 단장 도난문제를 요구했으나 도

서관측은 그것으로도 풍랑이나 노천소음은 차단할 수 없으며 구조상 이중창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조사과정은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클럽행사 이용기간은 현재의 특수성을 고려해 6개월로 1년으로 연장됐으나 각과마다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학생이 이를 영향을 미친 경우는 1년 후 다시 6개월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공중전화 증설은 전화국의 승인이 있으면 설치하는데 물려고 있고 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각한 도난문제가 사물함으로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난사건·주변을 위한 학회’를 제정·인발백제(一罰百制)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도서관에서 학생제시제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하고 학생에 의해 한 도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형사고발보다는 경각이주는 경우가 비단비해하된다 것이다. 그러므로 절도로 적발된 사람들은 신상을 공개하는 제재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자위측은 “제재조사 결과 사

물함설치를 위한 공간은 있다”며 “도서관 사장과 직원에게 의해 도난사건이 적발됐던 학생을 그냥 물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있다.

그밖에 품종, 노천극장 접수시 소음 등에 대한 대책으로 도자위에서는 이 중장이나 단장 도난문제를 요구했으나 도

서관측은 그것으로도 풍랑이나 노천소음은 차단할 수 없으며 구조상 이중창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조사과정은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클럽행사 이용기간은 현재의 특수성을 고려해 6개월로 1년으로 연장됐으나 각과마다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학생이 이를 영향을 미친 경우는 1년 후 다시 6개월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공중전화 증설은 전화국의 승인이 있으면 설치하는데 물려고 있고 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각한 도난문제가 사물함으로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난사건·주변을 위한 학회’를 제정·인발백제(一罰百制)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도서관에서 학생제시제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하고 학생에 의해 한 도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형사고발보다는 경각이주는 경우가 비단비해하된다 것이다. 그러므로 절도로 적발된 사람들은 신상을 공개하는 제재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자위측은 “제재조사 결과 사

98년, 왜 지금 통일을 말하는가 5- 통일을 위해 ① 올해의 구체적 과제

미 지배주의의 대처 · 남북교류협력으로 통일 물꼬 튼다

주한미군해결 · 평화군축으로 자주확립, 법 개정 · 민간교류로 민족단결 도모

<글심는 순서>

1. 98년 통일정책
2. 남한의 현재적 위기와 통일
3. 북한의 현재적 위기와 통일
4. 남북한 위기의 본질과 통일의 관계
5. 통일을 위해
 - ① 올해의 구체적 과제
 - ② 민간통일운동 보장, 활성화

'98년, 왜 지금 통일을 말하는가'라는 회두로 4년에 걸쳐 남한과 북한의 현재적 위기를 분석하면서 위기의 공통적 배경으로 '강화, 노골화되는 미국의 지배주의'를 지적하고, 그 극복방법으로 남한의 자주, 자장집약 확립과 그것의 궁극적 실현을 위한 남북한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현재의 시점에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두된다.

‘통일’에 대한 생각이 단위상에만 그치거나, ‘통일’의 과정을 정부가 알아서 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관화된 일관한 인식으로는 통일이라는 과제가 남북한이 공히 생존권의 문제로 나서는 현재의 위기를 절대로 풀어나갈 수 없다.

올해 정세의 두 가지 핵심

우선 통일과 관련한 올해의 정세를 살펴본 후 그에 적합한 과제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현재적 위기는 분석한 지난 시리즈에서도 알 수 있듯, 남한은 현재 경제가 폭탄과 같은 국가부문의 위기에 처해 미국이 주도하는 IMF의 신박통치를 받고 있다. 해방 이후 50년이 넘는 기간동안 남한을 자신의 속국처럼 다룬은 미국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에 대한 대개입을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 국방장관은 한국방문에서 알 수 있듯 미군 지원비 및 한국의 국방비 사감을 반대하는 미국은 남한에 무기구매에 있어 또한 계속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주의의 전략이 전면적으로 드러난 현재, 남한민족의 피폐화되어가는 삶의 문제에서 그 어느 해보다 ‘자주, 자강’의 필요성과 그들의 지배주의가 활개를 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통일의 과제가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취임사에서 남북한의 화해 협력과 이산가족 문제해결

남북분破裂으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과 정상회담 스마트와 학술 교류 및 경쟁분야에 입각한 경제교류확대 등을 글로로 하는 통일정책을 제시했다.

물론 이것은 민족의 이익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민중들의 두통으로 남한은 통일운동의 성과로서 대세를 가질 수 없는 미군과의 과제가 되었기 때문인 동시에 당면한 경제위기와 김정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인정화하는 방편으로서 구사되는 흙먼이 큰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서도 지난 4월 18일 남북조선 정당사 회담 대표자 연선회의 50년 기념 중앙연구소에서 김정일 총비서가 스미족지주원회 견지△에어케이션 단계△북한관계 개선△외세△비핵화△세계화△반대△문화△접촉△대화△연대△연합△강화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통일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남북한 정부의 통일행보는 민족적 단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미루어보아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IMF신탁통치체제 하 북한의 경제위기와 미국의 경제정책에 의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의 과정을 정부가 알아서 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관화된 일관한 인식으로는 통일이라는 과제가 남북한이 공히 생존권의 문제로 나서는 현재의 위기를 절대로 풀어나갈 수 없을 것이다.

자주자강의 과제 ①주한미군문제

그렇다면 이러한 현지의 시점에서 우리는 통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자주, 자강’의 투쟁과제로 주한미군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문제를 수 있다.

우선 주한미군문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자제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분단고학의 물리적 장치가 되고 있음으로 인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가전략 달성을 위한 물리적인 기반으로서는 충분하지만 미국이 소련, 중국 사회주의권과 긴장과 대결’이라는 근거를 없애고 남북의 경제 난으로부터 걸림돌로 남겨지는 남북한체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을 명시하고 있는 남북한의 시장의 이행에 기초한 평화 군축의 실현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더불어 미국의 군사적 자리를 극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이를테면 국가보안법 철폐를 통한 전반적 민주개혁 추진을 한층 수월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자주, 자강의 과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관건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자주, 자강의 과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관건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라는 것이다.

1990년대 들어면서 남북한의 협력으로써 경제적 협력과 경쟁력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경쟁을 살피면서 남북한은 서로에게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협력과

●국인투자유치, 이렇게 본다

외자유치, 죽은 경제 살리는 만병통치약(?)

외국인투자 목적은 결국 외국자본 위한 이익추구일 뿐

지난 25일 주식시장의 외국인투자도 한 전면 철퇴였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외환관리법상 제한이 폐지되고 외국인 이 국내에서 원화 또는 외화 표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외환거래도 자유화될 예정이다.

김대중 정부는 지금은 경제위기 해결의 길은 '외국인 투자유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외국인 투자유치' 만이 우리가 살 길인가?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고용창출과 기술이전, 선진경영기법의 도입, 국내 금융체계의 안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는 외국인의 직접투자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가리키는데, 직접투자란 외국자본이 공장을 설립하고 영업장을 구축하는 등 직접적으로 투

자를 하는 형태를 말한다. 반면 간접투자는 이자와 배당의 수익을 받는 주식과 채권의 형식을 가리킨다.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금융까지 받게 된 일련의 상황들은 단기자본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학교 경제학과 김종열 교수는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외국은행의 차관금으로 발생했다"며 "외화 부채가 민간연장되지 못하면서 단기자본이 들어왔다가 급속도로 빠져나갔던 것이 현 경제위기를 부른 가장 큰 원인"이라 고 설명한다.

이렇듯 현재의 위기가 도래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급작스런 자본회수 문제였고 이는 우리에게는 물론으로 이루어지면서 배당금 같이 자본회수가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식, 채권같은 '간접투자'의 폐해인 것이다.

이에 대해 박민수(서울대 경제학과 박사)

장, 29)씨는 "해외의존적인 우리 경제구조의 모순은 외국인 단기자본이 핵심에 빠져나가면서 겉장을 수 없는 힘을 초래했다. 이렇듯 현 경제파탄은 외국인 간접투자를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간접투자 규제해야 한다"며 "실제로 학계나 경제계 현장에서도 단기자본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모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 정권은 주식이나 부동산의 외국인 투자를 철폐하는 등 오히려 간접자본의 유치를 위한 정책을 폴고 있는 자신들이 표방했던 외국인투자유치(직접투자유치)까지도 세제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접투자유치와 실현은 희망의 대안인가. 이제 관한 연구와 검토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최근 직접투자의 부정적인 면이 대두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박

민수 씨는 최근 동남아시아와 남미의 금융위기를 예로 들며 "외국이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했으나 다른 품질에서 국가보다 외환위기가 먼저 발생했고, 맥시코의 경우도 IMF프로그램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의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사회경제학회 한 연구원은 이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간접투자와 마찬가지로 결국 수익성과 목적으로 한다. 직접수출이나 특허판권 등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기업은 전에 매수한 여지를 주지 않는 다"며 "이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의 후진기업은 그들에게 팔 수 있는 뜻"이라고 말한다. 결국 금융이 급한 상황인 국내 기업은 한 걸음 후자기업을 팔 수밖에 없으며 경기가 회복된 후 다시 그 후자기업을 매수할 때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경제위기의 폭발은 외국인 간접투자의 폐해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사진은 9000억 원 무너지던 지난 1월의 홍콩 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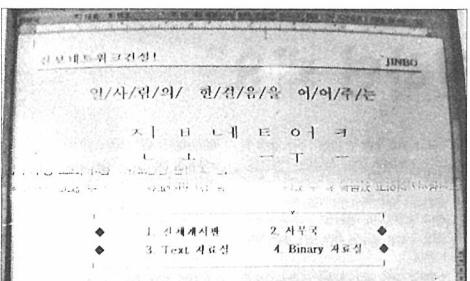
설계분야와 같이 외국인 직접투자는 많은 한계와 폐해를 갖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 만이 우리가 맹렬적으로 강구해야 할 해결책은 아닌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주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만을 근본적인 방안으로

김경신 기자

■ 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오병일씨를 만나

진보진영, 독립통신망으로 결집한다

국가검열에 공동대응·사회운동정보 체계적 제공



사진은 현재 짐세션에 개설되어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원회의 홈페이지

현재 금속으로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은 전 보적 사회운동에서도 대중적인 매체이자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다.

전 보적 사회운동들의 원칙 위에서 자본과 국가의 개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운동의 정보성을 이루기 위해 정보연대, 통신연대, 짐세션, 지역연대 등이 주축이 되어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설립하여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피씨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부분 상업통신망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상업통신망에서는 국가나 자본의 정치적인 목적의 걸림으로 인해 CLG폐쇄, 게시판 삭제, 이미지 정지가 늘상 일어나고, 앤커가 개인 메일박스를 뒤집거나 짐세션 시장에 경지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상업통신망과 인터넷의 곳곳에 진보적 사회운동을 전파하고 있지만 여러 산업통신망에 분산되어 있어 상업통신망에서 사

회단체의 CLG까지 찾아들어가는 일반인들은 거의 없다.

이같은 삼업통신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보

진영과 사회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일반인들의 접근도 높아나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검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부의 부당한 개인정보요청이나 게시물 삭제요청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다. 정보기관의 보장을 요구할 것이다. 저 사회단체가

집결해있으므로서 정부에서도 쉽게 서비스

제한을 하지 못할 것이다. 검열의 요구에 대

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PGP나

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문서점퍼보안

프로그램' 등이 암호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입하여 보급할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의 구체적인 상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사회단체활동가 및 개

인들을 위한 모든 종류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상집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자(ISP)'이다.

천리안이나 나우누리같은 BBS서비스(사회단

체(CUG), 인터넷 전화접속(PPP서비스) 및 인

터넷 서비스(인터넷 메일, 메일링리스트, 뉴

스, WWW) 등을 제공한다.

또한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만 받을 뿐 비상집적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각 부문운동영역에서 요구하는 소통

의 수단과 공간을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동, 환경, 여성, 청년학생, 사회, 인권, 문화,

보건의료, 종교 등 각 부문 네트워크를 결합

해 정보가 공동영역과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축적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각 단체에서 생산한 정보를 보다 활발하게 공유하는 문화를 형

성화할 것이다.

진보네트워크는 어떤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사회운동정보제공, 진보운동의 동향 등에 관

한 온라인 뉴스집, 전보단체 색인 및 검색,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제공한다. 본산되어

있는 사회운동과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접증시

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정보이용료 없이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다음달에는 1구좌 3만원을 조정하는 벌기인

38명 모집운동, 진보네트워크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지역설명회를 밟힐 것이다.

그리고 8월 중순 서벌서비스를 거쳐 11월

중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발족하여 정치서비스

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세계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힘



공포의 균형(BOT)

공포의 균형(BOT: Balance of Terror)이란 어떤 행동을 하려는 상대에게 그 그러한 행동을 하려면 이쪽에서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자아내게 함으로써 원래의 생각을 포기하도록 하여 생생간의 '행동의 금지(fraction)'를 달성하려는 인식상의 균형을 말한다.

이 용어는 핵무기의 기공한 파괴력을 바탕으로 생전사적 일급 핵국기였던 미국과 소련간에 성립된 '핵무기균형'을 묘사한 것이다. 이러한 '공포의 균형'은 만약 어느 일본이 해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면 불균형 즉 핵전쟁을 초래하고 되는 미묘하고 아름다운 균형이다. 그러므로 핵무기의 확산으로 초래된 '공포'를 일부 강국들이 관리하려 하는 것이 핵화산급지조약(NPT)이다. 다시 말해 핵화산으로 인한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핵전쟁으로 국제 사회의 안전과 평화에 필요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항후 예정된 CBT는 이를 영구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인도와 페르시아인에 반발하는 것이다. 미국은 평화를 촉진하려 이의 제재에 나설 것이다.

윤경철 <노어&87학번, 핵심과 맥락 국제정치학 저자>

스크린의 뒤편에서 40년, 이민부 조영감독, 오직 조영 하나로 일기를 이룬 그는,

임권택 감독과 함께 우리 영화의 새로운 충홍기를 이끌어가는 숨은 프로입니다.

이렇듯, 남들이 보아주지 않아도 자신만의 한 길을 완성한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프로라 부릅니다. 흐성이 스스

로를 프로라 자부할 수 있는 것

프로가 다시 세우는 나라

도, 기간산업이라는 한 길로 40여년을 걸어 온 전문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종합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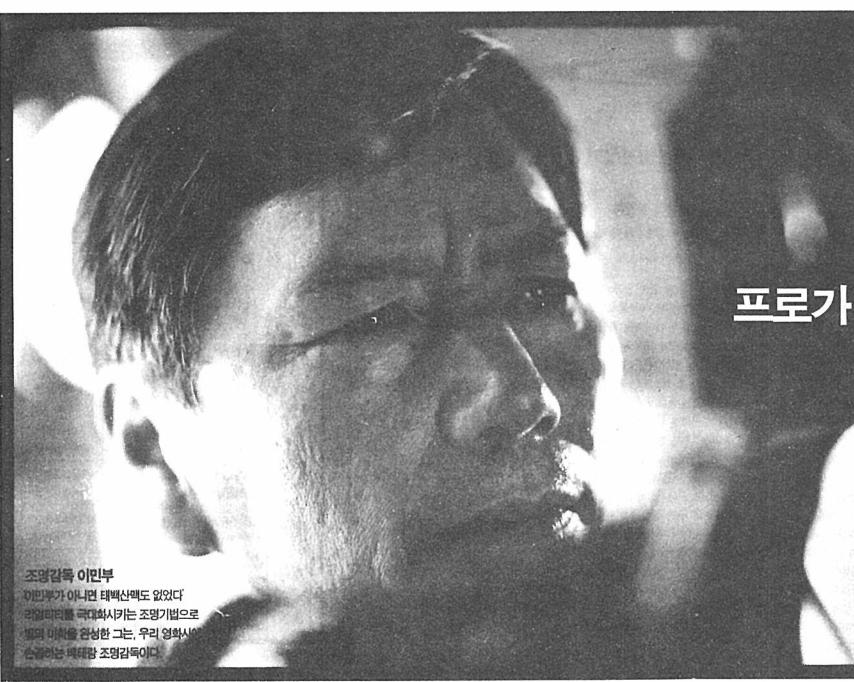
역에서, 섬유·화학에서, 중공업에서- 우리 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되어온 효성. 다시

일어설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이제 효성이 진정한 프로로서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모두가 열을 생각할 때 프로는 하나를 생각합니다.

프로정신

효성



조영감독 이민부

이민부가 아니라 테페산책도 있었다
리얼리티를 극대화시키는 조영기법으로
생각의 미학을 강화한 그는, 우리 영화사에
순례하는 해마다 조영감독이다.



한총련 출범식 일정 마지막날인 31일(월) 서울대에 있던 2천여명의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와 밖에 있던 학생들과 합류해 신도림·장기 등의 자치회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총련 학생들은 한 정부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동시에, 6·4경에 대운대에서 신설되었던 기자수첩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사진은 철도 노동자들이 「근절! 부당노동행위」라는 글을 부착한 청량리행 전동차 모습이다

민중의 품속으로

달려가는 한총련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한 이후 노동자·시민·靑색·현대·4천여명은 면도선단까지 이동을 했던 페퍼레이션을 하며 정리해고 반대·IMF 재협약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하편 면도선단에서 정리진회를 마친 서총련 학생들은 출판동에서 시민·서전전을 진행했다.

사진
임승희 기자

지난 29일(금) 서울대에서 출범식을 마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학생들은 민주노총과 전국연합 등 300여개 사회시민단체와 함께 참가한 30일(토) 범국민대회에 참가, 노동자와 함께 평화적인 거리투쟁을 펼쳤다. 행진의 마지막 집결지였던 명동상당에서 시민들과 노동자, 학생들을 만나 올해로 67주년 맞은 한총련에 대한 생각과 희망을 나누었다.

제17장 노동자 권리(31)

화초려의 이전단계 그전에 대한 새가운

한종현의 이민론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자주인은 한종현의 저작을 이론으로 모는 것은 본분 같았던 것이다. 김영삼 정권이 이민학제로 규제하는 것 자체가 한종현 근거를 수반한 것이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도 자신에게 이민을 위해 아무 진위여부 없이 김영삼 정권의 모순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언론도 거기에 목록한 한 줄 하고 있다. 더구나 한종현은 정부의 구호를 내걸고 있다. 정당한 이민동의와 지지는 둘째로 정부에 경쟁을 등장하고 노동자 총파업이나 한총련의 항쟁들을 모두 밤으로 불어들이는 것은 김영삼 정권이 더 이상 '민족'의 정부가 아니라 드러내려는

▶ 익연매 출판부작 반점소 (연 25)

성균연맹 총구무성 박상국(

학생, 노동자의 안내 투쟁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노학연대를 받아안는 민주 노총의 역할이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미래의 노동자로서 사회의 잘못된 점, 특히 노동자의 희생을 경계하는 자금의 현실에 함께 대항해 나가는 것은 청년학생의 입장으로 생각된다.

시민 김연주(여, 26)

정권은 노동자나 학생들의 집회에 공권력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이렇게 많은 전경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

© 2000, 2001 by Kluwer Academic Publishers.

회원 하재기(남, 25)

한총련의 투쟁방식에 대한 생각은,
회사일로 이동하다 보면 가끔 학생들의 거리집회로 불편을



30일(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는 고용·실업 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재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1차 국민대회가 열렸다.

으로 정당한 의견개진의 장이 차단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거리집회 외에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서울역에서 전경에게

④ 유태 조지지침과 바실태 (1), 22)

• 1000 000 000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는 유파 대학에서 1981년으로 출판된 이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구미 대학에서 학적으로 출범식이 서두졌다. 물론 많이 아쉽기는 한다. 그러나 올해 정세는 출범식을 성대하게 치루는 것 보다 오늘같이 노동자, 시민과 함께하는 투쟁이 더 시급하게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김겸신 기자



29일(금) 오후 2시 47분 출범식이 서울대에서 기념적으로 열렸다.
김도현 위원장에게 30일 일정으로 임명장을 수여한 이번 출범식은 김대중 정권의 원천봉쇄로 4천여명의 학생들이 이미 참여한 가운데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에 경찰청, 서울경찰청 허리파인트부, 토익, 고등방송과 사회사업 등을 하였으며 서울대 주변을 전부 봉쇄해 물류점검과 관리를 시행하였다.
한편 출범식 시간 동안 4천여명 학생들의 수는 5백여명에 달한다.

① 후 외대의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가 ⑤ 재단투쟁 결산 인터뷰

우리학교 재단투쟁은 지난 29일(금) 박승준 전 재단 전무이사에 대한 구속으로 서서히 정리가 돼기고 있다. 따라서 이제 재단투쟁은 이후 외대전 경기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고 그간 재단비리를 눈감아준 학내구성원 경계 등 학내 분위기 안정화를 위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보는 그간 재단투쟁을 중심으로 벌어온 학내 구성원 중 총장 직무대행, 노조위원장, 서울 외대발전추진위원회(외발진) 위원장, 용인 부총학생회장 등을 만나 재단 투쟁 정리와 이후 외대발전 투쟁에 대해 들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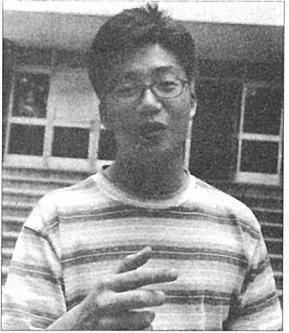
편집자



조규희 총장 직무대행



장건 직원 노조위원장



제성훈 서울배움터 외대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정민 용인배움터 부총학생회장

풀뿌리 민주화 통해 외대발전 이룩할 것

재단시대가 아무리 돼고 있는데 이후 거장 시급히 할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재단비리를 눈감아준 교수, 직원들을 징계하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질서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아직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관선이사가 파견되는 데로 구체화할 것이다.

학내 민주적 의사 결정 기구인 대학운영위원회에 대한 청탁은 외대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하며 말하는데 재단, 교수, 학생, 직원, 동문,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대학운영위원회(가칭)를 설립·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확장화에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 고려사항이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순리다 생각한다.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총장의 상에 대해 중앙집권권으로 총장의 모습으로 학내구성원들의 위업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학내구성원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이 수 있는 민주적으로 의사의 실을 갖고 있다. 나는 풀뿌리식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에 호응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이후 외대발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우선 총장으로 선출될 때 걸고나온 공약을 실천하는 일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학교 이전 문제는 완으로 이전하는, 자곡동으로 이전하는지 간에 가장 합당한 곳으로 내년 초까지 결정할 것이다. 민족 자랑을 이끌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 맘을 팔아 이문·왕산 배움터에 구부 제주자할 것이다.

재단 견제하기 위한 행정의 자율성 필요

재단시대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재단시대의 본질은 학생 충하생회에서 달라는 학내 세력 간의 분분이 아니다.

재단시대의 근본원인을 굳이 얘기하자면 재단개혁을 하지 않으면서 학력들과 민주세력간의 싸움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선이사 파견이 되었고 있는데

그동안 관선이사가 파견이 안된 이유는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해외로 출장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 아무튼 그가 돌아온대로 시급히 잘 할 것이다 믿는다. 또 동문 중심으로 관선이사가 파견될 것으로 안다.

직원노조를 대표해 대학운영위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대학운영위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계획이 교육부 광고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로 보더라도 학교운영위로 비민주적이었던 학교가 투명한 행정, 교육을 통해 민주적으로 바뀌게 되는 사례를 흔히 접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도 지역유지, 동문, 학부모까지 포함하는 대학운영 건설은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

직원노조에서 재단제재 회장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현재 노조위원에서는 오는 4월(목) 용인배움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재단부정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며 관선이사를 견인하기 위한 모임을 건설하는데 적극 참여할 것이다.

또 재단이 행정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의 자율성, 독립성을 목표로 투쟁할 것이다.

재단비리 가담 교직원 처벌 위한 투쟁 나설 것

기장 시급히 벌일 투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재단시대에 기념한 교육부 징계와 편입학 일선의 사람들은 대개 저별 투쟁을 벌일 것이다. 또한 이 투쟁에 이어 이번 학기 말에 수업을 받는 주제인 학생들로부터 강의 평가를 실시해 그동안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친박승준 세력을 완전 축출하기 위한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현 재기 투쟁과 달리 학우들이 '우리가 나서면 승리한다'

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또 학원 3주제가 모두 참여하는 투쟁으로 승화됨으로써 이전 재단문제 완전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도 3주제가 핵심이라는 협회·방식·등이 논의될 수 있는 것 같다. 예를들면 대학운영위와 같은 것을 듣 수 있다.

이후 재단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번 학기 말 진행할 강의평가를 바탕으로 2학기 때 강의 평가를 만들어 이번 투쟁이 재단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

또한 재단 비리를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대발전 정기 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확정시킬 것은 없다. 다만 조규철총장 직무대행의 계획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각 종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총회·증진·동록금·인상·동문·관련한 사안들을 학생, 직원, 교수와 함께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적 관선이사 파견 투쟁 중심으로 펼치겠다

기간 재단투쟁에 대해 평가를 하면

왕산이 재단투쟁은 원칙을 중심으로 잘 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선전역량 부족, 대내외 논란 등 많은 오류점들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원칙을 견지한 상태에서 투쟁한 관점을 가지고 재단시대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재단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외로운 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신진세력 간의 핵여루기 싸움에서 신진세력의 승리로 이 문제가 마무리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과 신진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원선이사는 투쟁방법 방식에 많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아직 재단시대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 고하고. 아직 많은 학우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지만 이후늦게는 몇 후에 총학생회의 방향이 물었음을 학우들로부터 검증받게 될 것이다.

이후 투쟁계획에 대해

얼마전 교육부 감사 담당자에게 찾아가 민주적 관선이사 파견을 호소하는 정신과 선언문을 전해주었다. 1월 초 학내운영위원회(외대운영위)에서 기간 재단투쟁을 평가하고 이후 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민주적 관선이사 파견을 위한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관선이사가 파견된 이후에도 민주적이지 못한 인사가 관선이사로 영입될 경우 교육부에 제재를 청구할 것이며 관선이사를 견제하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대학부

현제의 가정환경조사

…옛날 초등학교때 가정환경조사라는 것이 있었네. 어머니,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인지, TV, 냉장고는 있는지, 집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그때는 잘나는 친구와 비교가 되어서 아버지 직업도 물어 봐야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 코로나를 드는 생각, 요즘 가정환경조사 때 이런 항목은 꽤 필수가 되어야 할 것 같네. *부모님 직업여부 (O)나 *없는 (X)이나 *일반적 까지 있었는데 이제 없다. (경리해고를 반대하는 코로나를자)

<겁>

… 학생회관 오후 5시, 풍물페 연습소에서 짐을 차릴 수 없네. 기조커가 당시 계획된 협정과의 반정도를 주었기 때 문이라고. 그러면 너무 작자 16시 풍물페가 제대로 연습할 공간이 아니기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있으나 마나하고, 아! 기조커! 나! 의심생이야. 너너니 기조커. 이제 조금이라도 조용해진 학생회



관에서 쉬고 싶어.

<석>

… 6·70년대 권력의 황제 박정희도 결국 삼부화학의 충격을 맞아 즉각 비탄한 최후를 기록했으나, 역시는 우리에게 달하는 바 험에는 막里面有! 14년간 외대의 환경으로 군림한 박정희. 그에게는 학생들과 비교하기 풍물페 정도로 학생들 부모님이 빠지게 일해 낸 풍물페 양한 때마다 그 높도 결국 삼부화학의 충격을 맞아 즉각 비탄한 최후를 기록되었으나, 역시는 우리에게 달하는 바 험에는 막里面有! 승준! 더 비탄한 환경을 당하기 전에 그동안 학생들 등록금으로 산 집과 차와 재산 빨랑 환수시키고 반정도 죽을 때까지 쓰기.

<석>

… 20XX년 5월 '서울민중항쟁' X주년 기념행사가 요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 미래 코로나를자기 의회정 버전으로 '아씨씨! 서울민중항쟁이 뭔가야?' 이에 들려오는 말 '1988년에 미국의 경제신탁통치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학생들의 투쟁을 기리고자 하는 행사라네. 이를 들은 코로나를자기 '어? 그럼 내가 이제야 미국항쟁?'

<승>

서울 민중항쟁

비둘기 칠판

왕 산 골

알립니다

• '공들이, 공순이 놀면 놀고 할땐 하자'
공대 학부 어려운 한 번 묵여 봅시다.
때: 1일(월)~3일(수)
곳: 용인 곳곳에서

(공대 학생회)

• 중국어과 원어 가요반 1회 공연이 있습니다.
때: 3일(수) 늦은 6시
곳: 후부관 소극장
(중국어과)

• 동아리 매체분과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일(화) 3:30 농구
2일(수) 3:30 농구, 피구
3일(수) 3:30 농구, 줄다리기 · 이후 시상식 및 및첨이
(동아리연합회)

▣ 구합니다

• 사람 급구 합니다.
대상: 외대 재학 중인 모든 어,남학우
하는일: 정신내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학습 및 활동
곳: 총여학원회 교육위원회(학생회관 2층 비니리 앞)
때: 매주 수요일 6시~?

조건: 정신내 문제 해결 의지 필요함
보수: 다양한 지원+@
모집인원: 0명

〈총여학원회〉

▣ 찾습니다
• 디아리리를 찾습니다.
진한 남색 내지는 검정색으로 KOREA UNITY라고 적힌
디아리리를입니다.
연락해 주시면 맛있는 카페수 시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어나면 곳: 학생회관 전화박스 안
연락처: 01577-55-7502

이 문 벌

알립니다

• 중국어과 이문·왕산 함께 체육대회 합니다.
때: 4일(목) 늦은 1시
곳: 이문동 대운동장
많이 많이 참석해 주세요.
(중국어과 학생회)

주제: 체육인상 - 예수체육, 생명체육

주최: 김준민(CCC 총재)

박성민(EAST 학장)
풀 예술관 · 미카도나
프로젝트 대표 등등,
때: 6월 30일(금) ~ 7월 4일(토)
곳: 혜성독립공원 용산과 혜수당
주최: C.C.C(한국대학생선교회)
연락처: 061-4577

(외대 CCC)

(그림촌)

• 외인부대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때: 7월(월) ~ 6일(토)
곳: 우리 학교 전시관

광고로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외인부대)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로는 받지 않습니다.

총여 '정신대' 소모임 모집

정신대 문제 해결 위한 학습, 활동 벌일 터

용인배움터 '일상의 빈민' 10대 총여 학부회에서는 '정신대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활동'에 동참한 학생을 급히 모집한다.

대상은 용인배움터에 재학중인 남자 학생들이며 선발이 되면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과 활동을 벌일 터다.

습과 활동들을 철저해진다. 매주 수요일 6시에 출마학부회 교육 위원회(학생회원 2층 바나나홀)에서 접수를 받으며 정신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에 대해 수습간부 박구민경(환경·

미생물학부 1)양은 "정신대 문제는 분명히 일본당국에서 시사하고 배상해야 하는 문제인데 일본에서는 국민기금이라는 명칭으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있다"며 "이런 부정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우들이 많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용인 '애국인문체전' 열어

사학과 전체 종합 우승

애국인문체전 열려

용인배움터 인문대 학생회는 지난 26 일(화)부터 28일(목)까지 3일동안 용인배움터 곳곳에서 '애국인문체전'을 진행했다.

이번 인문대 체전은 '화생단검 도보'

를 목표로 족구, 농구, 릴레이, 족구, 농구 등 경기를 치렀으며, 사학과가 족구 농구 릴레이 등 4개 종목 우승으로 전체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언어학과가 족구 농구 우승을 했다.

이번 체전 폐막식에서 인문대 학생회

장 정승현(사회 4)군은 "체전에 열심히 동참해준 학우들이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체전에서 단체로 잘 되는 것처럼 이후 있을 무정에서도 힘차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체전 폐막식에서 인문대 학생회

장을 목표로 족구, 농구, 릴레이, 족구, 농구 등 경기를 치렀으며, 사학과가 족구 농구 릴레이 등 4개 종목 우승으로 전체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언어학과가 족구 농구 우승을 했다.

장 정승현(사회 4)군은 "체전에 열심히 동참해준 학우들이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체전에서 단체로 잘 되는 것처럼 이후 있을 무정에서도 힘차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 농활 주체 서울 부총학생회장 강성삼군을 만나



"봄농활 통해 학생회 강화"

이 사람

계기 마련



추스리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학부모 투쟁은 분명 승리한 투쟁이고 학생회는 항상 학우들에게 지지와 기대해 줄 것이다. 하지만 간부들이 그런 요구들을 충분히 받아 암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였지요' 강군은 다음 힘이 빠른 있는 간부들에 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탄핵하게 일어서는 척기로서의 농활을 기대했다고 말한다.

"학부모 투쟁의 성과를 나의 것으로 받아야만 했지만 일꾼들에게 농활은 책임감과 그들의 임무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생각해요. 농민들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회적 모순들을 고민,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학생회 일꾼이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일꾼들을 다시 추스릴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생각해요" 둘은 실질적인 농활을 더 나누었다. 농민회의 계속적인 연제로 농활의 기조에서부터 실무적인 문제 등을 주도적으로 고민했던 강성삼(사회·신방 4)군은 만나 보았다.

예년보다 조금 늦은 이번 봄농활은 의미 또한 예년과는 그간 학생회 강화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물어놓았던 것이다.

김경신 기자

지난달 22일 ~ 24일(일)까지 2박 3일간 우리학교는 전시부도 순창으로 봄농활을 다녀왔다. 농민회의 계속적인 연제로 농활의 기조에서부터 실무적인 문제 등을 주도적으로 고민했던 강성삼(사회·신방 4)군은 만나 보았다.

예년보다 조금 늦은 이번 봄농활은 의미 또한 예년과는 그간 학생회 강화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물어놓았던 것이다.

1998학년도 제1학기 기말시험 및 추가시험

1998학년도 제 1학기 기말시험 및 추가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시험기간 : 가. 1998. 6. 15(월) ~ 6. 19(금) 5일간

나. 시험시간표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나,

담당교수 지시에 따르기 바람.

2. 평가방법 : 담당교수 계산으로 필답고사, 과제물 부과.

수업종 수시평가,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3. 추가시험

가. 대상자 : 해당과목의 중간, 기말시험을 모두 결석한 자로서는 유고증명한 경우에 한함.

나.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장소 : 1998. 6. 22(화) ~ 6. 23(화).

해당대학 교학과

다. 추가시험 실시 : 1998. 6. 26(금)

라. 추가시험 성적제한 : A0~하(학적 제36조)

1998. 6.

교무처장

하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안내

199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과목은 다음과 같이 공고하나, 수강희망학생은 소정 기말시험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하기 바랍니다.

개설과목과 평가

교과목	교과목명	학점(학기)	학점(학기)	학점(학기)	비고
서양미술	서양미술 1(기본)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서양미술 2(기본)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2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3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4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5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6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7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8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9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0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1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2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3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4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5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6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7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8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9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20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21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22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23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24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25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26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27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28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29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30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31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32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33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34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35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36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37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38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39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40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41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42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43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44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45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46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47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48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49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50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51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52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53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54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55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56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57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58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59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60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61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62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63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64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65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66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67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68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69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70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71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72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73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74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75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76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77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78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79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80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81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82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83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84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85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86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87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88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89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90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91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92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93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94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95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96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97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98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99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00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01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02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03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04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05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06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07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08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09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10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11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12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13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14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15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16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17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118	2(3)	2(3)	2(3)	3~4학기 1998년도
-	현대미술				



붉은 악마처럼 '하얀공간'의 바디 페인팅에 조그만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아이의 표정이 사뭇 진지.



몰아쳐기자

폐막식에 한판 홍겨울이 벌어졌다. 대동제를 함께 한 학생들이 모두 모여 '바위처狸'을 부르며 한 몸이 되었다.

거기에 왕산인이 있었다

제작

임승희
사진부 기자

너, 잘 만났다!

29도를 웃도는 날씨에 대동제를 시원하게 적서주는 물풍선 던지기.
외대발전도, 학생운동도 시원스럽게 터졌으면.



잠시 나를 버려두고

그래. '나'를 버려두고 '우리'로 있어보자. 내안에 사람�이 있어 좋다.
통큰 단결의 대동. 신나게 놀아보자.



우리 줄을 뗄어봐

500명이 함께 들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는 거대한 영산 줄다리기. 그러나, 평화구축팀과 재단개혁팀이 거둔히 들어올린 줄다리기.
이 힘을 모아 불신과 반목을 버리고 믿음과 단결로.



이제, 왕산의 전통이다

헝가리어과의 일명 '날오는 양 틴자'
담요의 빙동으로 사람을 공중으로 띠었다가 밟아치는 것.
1미터 이상은 거둔히 올리가 번지 점프만큼의 스릴. 어느새 왕산 대동제의 전통이 되었다.

